

수월루중수상량문(水月樓重守上樑文)

1863_이종상(李鍾祥) 지음_57.0×131.0cm



1863년(철종 14) 수월루 중수에 관한 상량문이다. 서원의 내역과 중수에 따른 기대감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상량문은 이종상(李鍾祥)이 작성하였다.

水月樓重守上樑文

斯文正脈與天地而并立猗歟先師之繼往而開來凡物大數雖鬼神而莫逃惟在後人之窮修而興廢所以是樓是役卑見再圮再新苟非崇賢慕道之本乎人心安能圖事建功之若是神速伏惟道東書院奎嶠南瞻淵山連戴尼之尊以洙泗則昌平閔里地接甫老之舊在考亭則尤溪婺源凡我儒冠固知莫不尊親至心殫慕則此鄉為切蹙庶幾食雖日布在州縣初頭締結則是院居先排置已定於雙溪之初事無不備節目曾經於寒箭之手禮必合宜以至庖夾之小庖溫之微皆極規模之遠結構之固則此院門設觀之制兼為生徒登臨之資垣豆菽蔬之餘政好舒暢其神氣襟紳過式之處亦所贊動其觀瞻百靈護衛之力斯存擊無由作先輩設施之意甚密慮靡周宗奈何議出之災再此苾苾之地咫尺樓神之宮自在夢謠縱不妨於時裡暇日怡心之事無慮憑依亦一欠於院體肆灰燼不過數歲而經紀又有今茲法周人斯干之詩惟務規制之孔緻用魯史修學之義不計衰禮之方殷採木於公私之山孰敢抵牾於此事歷火於干支之水政自偶合於今年工殫勳士殫誠罔或有差緩而後時者山增輝水增麗是所謂將多於前功哉望庶翼而徘徊自人情之起敬起肅涉梯級而升降驗員工之不疾不徐雖未及登覽於斯樓猶可以領略其大槩不往天無邊月想應來照於樞頭數頃煙幾疊山依然環拱於望裏嗟夫非無雲物之舊誰識天機之真明倫敬身別有光霽之氣象憑軒縱目猶屬虛閑之境情為助修梁疏短引

拋梁東

琵琶山色碧蔥蘢

古亭餘韻無人會
幄簾聲中獨倚空

拋梁西
淨水寒泉今古齊
聞道先生生事日
寢門夜夜聽初鷄

拋梁南
戴陽亭畔草氍毹
同人講說今猶想
微輿應參牛與蠶
拋梁北

萬古陶山望不極
關發伊誰編輯誰
景賢一錄遍於國

拋梁上
白日當天長晃朗
不見長安人莫愁
浮雲散盡白眞像

拋梁下
洛水泱泱流不盡
直到滄溟方始休
工夫不息如斯者

伏願上梁之後院貌增重士心喚醒 由是門而入焉 尚可窺夫子之數仞大其基而做了 因以悟學者之九
層從事五倫 孰非始下學之童子更進尺步 勿作不上來之遊人

哲宗癸亥六月 日 後學驪江李鍾祥謹撰

수월루중수상량문[水月樓重修上梁文]

사문의 정맥이 천지와 더불어 나란히 서니 아 선사께서 옛날을 잊고 후학을 열어주었고, 모든 사물의 큰 운수는 비록 귀신이라도 달아날 수 없으니 오직 후인들이 뒤이어 닦고 흥기시키는데 달렸네. 까닭에 이 누대의 이 일이, 이에 거듭 무너졌다 다시 새롭게 지어진 것 보았네. 실로 현인을 높이고 도를 사모하는 것이 인심에 근본하지 않았다면, 어찌 능히 일을 도모하고 공을 세우는 것이 이와 같이 신속할 수 있으랴. 삼가 생각건대, 동동서원은 실로 우리 영남의 시작이고 연원일세. 산은 높은 대나산을 이었으니, 수사(洙泗)에 있어서는 창평(昌平)과 결리(關里)요, 땅은 옛날 보로동(甫老洞)에 접하였으니, 고정(考亭)에 있어서는 우계(尤溪)와 무원(婺源)일세. 우리 선비들이 실로 어버이를 높이ذ 않음이 없는 줄 알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은 이 고을이 진실하고, 우뚝이 저 사당에 배향하는 것은 비록 주현에 널리있다 하더라도 처음 면제(綿祕)한 것은 이 서원이 앞선다. 배치가 쌍계의 초두에서 이미 정해지자 일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고, 절목이 한야(寒嶽)의 손에서 일찍이 만들어지자 예가 반드시 마땅함에 합하였네. 상협(庠夾)과 포핍(庖湍)의 작고 미미함에 이르러서는, 모두 원대한 규모와 견고한 결구를 지극히 하였네. 하물며 이 서원에 경관을 마련한 제도는 생도들이 올라 임하는 바탕을 겸하였음에랴. 제사를 경건하게 받드는 나머지 정신과 기운을 펼치기에 정히 좋고, 선비들이 의식을 치르는 곳에는 또한 구경하는 이들을 응동시키네. 온갖 영령들이 힘써 호위하니 이에 요일이 말미암아 생겨날 수 없고, 선배들이 마련하여 시행한 뜻은 매우 사려가 엄밀하여 두루미치지 않음이 없네. 어찌하여 희출(誦出)의 재앙이 이 향기로운 땅에 거듭 생겼는가. 지척에 있는 신령이 계시는 궁은 절로 편안하고 고요하니 비록 때의 제사 지내는 데 방해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한가한 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 또한 서원의 체제에 한 가지 흠일세. 불타버린 것이 면 년에 불과하지만 경영하는 것은 또 지금에 있네. 주나라 사람의 사간(斯干) 시를 본받으니 오직 규모와 제도가 매우 정치하기를 힘쓰고, 노사(魯叟)에서 학문을 닦는 의리를 사용하니 곤포(筮糶)가 바야흐로 성대함을 따지지 않네. 공사(公私)의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니 누가 감히 이 일을 막을 것이며, 간지(干支)의 물에서 불기운 누르니 정히 절로 윤희와 우연히 합하였네. 장인은 부지런함을 다하고 선비는 정성을 다하니 혹시라도 어긋나거나 늦추어지는 것이 있지 않고, 산은 광채를 더하고 물은 아름다움을 더하니 이른바 장차 전인의 공보다 많게 하리라는 것이다. 날개 같은 모서리 바라보며 배회하니 절로 인정이 공경과 엄숙함을 일으키고, 계단을 지나 오르내리니 진공(眞工)이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줄 알겠네. 비록 이 누대에 올라 미처 구경하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그 대강을 알겠네. 머무르지 않고 가없는 하늘과 달이 생각건대 응당 난간 끝에 와서 비쭈 것이요, 몇 이랑 몇 겹의 연기와 산이 의연하게 바라보는 속에 둘러 안았네. 아! 오랜 운물(雲物) 아님이 없으니, 누가 참된 천기(天機)를 알라. 인륜을 밝히고 몸을 공경함에 별도로 광제(光霽)의 기상이 있고, 현함에 기대어 눈가는 대로 바라보니 오히려 비고 한가로운 정경(淸境)에 속하네. 돌보 올리는 것을 돕기 위하여 공손히 짧은

노래 바치네.

들보 동쪽에 던지세 / 拋梁東

비슬산 질푸른 빛 자옥하네 / 琵琶山色碧蔥蘢

옛 정자의 여운 아는 이 없으니 / 古亭餘韻無人會

필물(琴瑟)의 소리 속에 홀로 허공에 기대었네 / 琴瑟聲中獨倚空

들보 서쪽에 던지세 / 拋梁西

깨끗한 물 차가운 샘 고금에 똑같네 / 淨水寒泉今古齊

선생이 살았을 때의 일 들으니 / 聞道先生生事日

침문엔 밤마다 새벽닭소리 들렸다하네 / 寢門夜夜聽初鷄

들보 남쪽에 던지세 / 拋梁南

대양정가에 풀이 파릇 돋았네 / 戴陽亭畔草氍毹

사람들과 강설한 것 지금도 오히려 상상하니 / 同人講說今猶想

은미하고 심오함은 응당 소털을 분석하고 누에처럼 풀어내었네 / 微奧應參牛與蠶

들보 북쪽에 던지세 / 拋梁北

만고의 도산 끝없이 바라보네 / 萬古陶山望不極

천양하여 드러낸 이 누구이며, 편집한 이 누구인가 / 闡發伊誰編輯誰

『경현록』 한 책이 나라에 두루 퍼졌네 / 景賢一錄遍於國

들보 위쪽에 던지세 / 拋梁上

흰 해가 하늘에서 길이 밝고 빛나네 / 白日當天長晃朗

장안을 보지 못해도 사람들은 근심하지 말라 / 不見長安人莫愁

뜬구름 다 흩어지면 절로 참 형상일세 / 浮雲散盡自眞像

들보 아랫 쪽에 던지세 / 拋梁下

낙동강을 성대하게 쉬지않고 흐르네 / 洛水泱泱流不舍

푸른 바다에 바로 이르러야 비로소 쉬게 되니 / 直到滄溟方始休

끊임없는 공부도 이와 같다네 / 工夫不息如斯者

삼가 바라건대, 상량한 뒤에는, 서원의 모습 더욱 무거워지고 선비들의 마음 깨어나게 하소서. 이 문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오히려 부자의 몇 길 담장을 엿 볼 수 있고, 그 기초 크게 하여 지었으니 인하여 학자의

구층(九層)을 깨닫게 하소서. 오류에 종사하는 것 누누인들 동자의 하학 공부에서 시작하지 않으리오, 다시 진보하여 한 걸음 나아가가 유인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 되지 말게 하소서.

철종 계해년(1863) 6월 일 후학 여강(驪江) 이종상(李鍾祥)이 삼가 짓다.

※ 李鍾祥, 『定軒集』 卷15, 上梁文, 「道東書院門樓重修上梁文」에 수록.

※ 번역 : 『도동서원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2